

독일호텔 "수건 여러번 쓰세요" 비누 덜쓰기

독일 대부분의 호텔 욕실에는 '꼭 빨아야할 수건은 바닥에, 한번 더 쓸 수 있는 수건은 세면대에 걸어달라'고 적혀 있다. 수건을 오염시키는 합성세제를 최대한 덜 쓰고, 물도 절약하자는 것.

주독 한국대사관 김영희 공사는 "20년 전부터 꾸준히 펼쳐진 정부의 환경교육 덕에 국민들 몸에도 친환경적 습관이 배었다"고 했다. 독일 환경청의 요스트(62) 국장은 "희망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세금으로 공익광고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을 통해 습관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애드먼튼시는 91년부터 1300대에 이르는 제설차 및 쓰레기운반차 운전자들에게 공회전이나 급제동 등 사소하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5년 동안 교육했다. 이 기간 휘발유 사용량은 5% 감소하고, 차량 유지비도 크게 줄었다.

스웨덴 예테보리의 가정용 쓰레기통은 '종이·캔·기타 쓰레기' 등 3칸으로 구분돼 있다. 집안에서도 환경교육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셈. 예테보리는 몇해 전 시민들에게 전화번호부를 배

포하며 '환경수첩'을 동봉했다. 정원용 비료는 어떤 제품이 오염이 적은지, 합성세제를 쓰지 않고 얼룩을 빼는 법 등 생활에 필요한 환경상식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시청 스페르드 수질국장은 "주민들이 장보러 가거나 살림하면서 수시로 펼쳐보도록 '알뜰정보'를 모았다"고 했다. 거창한 구호나 복잡한 설명보다는, 작더라도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경펀드' 독일서 큰 인기

독일에서 환경분야의 투자 펀드들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98년말 이 같은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6억마르크(미화 약 2억6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5배나 늘어난 30억 마르크를 기록했다.

지난해 독일의 전체 투자펀드에 유입된 금액인 660억마르크였다. 눈을 감안하면 30억 마르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원유·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대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점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토마스 빌러 소비자담당

관은 지난 5월 22일 "에코 펀드가 전에 없는 인기를 누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특히 "투자의 윤리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0년대에는 이 같은 종류의 투자는 좀 색다른 것으로 간주됐으며 수익도 다른 투자처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었다"면서 그러나 그 같은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친화적 펀드들은 엄청난 가치상승을 기록했다. 일례로 '포쿠스 움벨트' 펀드는 거의 100%의 가치상승으로 투자자들을 흥분시켰고 '외코비지온' 펀드도 40%를 기록했다.

특히 첨단기술 및 닷컴 주식들의 폭락과 파산이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면서 환경 친화적 투자 형태가 각광받는 대체물로 등장했다. 지난 97년 4월 출범한 환경친화 주가지수 'Nax'는 지난 12개월 동안 지속된 주가폭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Nax'에 주식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나 재활용시스템, 천연 약품 중 적어도 한가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연매출이 1억마르크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Nax에는 전세계 20개 기업이

상장돼 있다.

12개 유해화학물질 생산·사용 금지 협약 채택

다이옥신, DDT, 퓨란 등 인체 및 동물, 환경에 유해한 12개 유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스톡홀름 협약이 지난 5월 22일 채택됐다.

세계 100여개국 대표들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회의를 갖고 '12개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는 1998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12개 물질 대부분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다. 미국, 스웨덴 등은 이들 물질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최소 50개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협약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4~5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이날 "POPs로 알려진 이들 화학물질은 시한폭탄이며 환경과 삶의 질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이를 인준하고 이행하며, 규제 물질을 확대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대상 12개 물질은 다이옥신, DDT, 퓨란, 올드린, 클로르덴, 딜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마이렉스, 톡사펜, PCBs, 헥사클로로벤젠이다.

이중 자동차 배출가스와 쓰레기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생식 및 면역체계 이상을 초래하는 물질이며, 퓨란도 쓰레기 연소와 산업생산 과정에서 배출된다.

또 생식체계에 유해작용을 하는 DDT는 세계적으로 연간 5만톤이 생산돼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25개국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환경보호정책 경제성장에 도움"

90년대들어 선진국들이 추진해 온 환경보호정책들은 성공적이었으며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장했다.

OECD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환경정책 보고서에서 "80년대 OECD 대부분의 회원국이 환경

보호면에서 진전을 보았으며 90년대 들어서 대기오염원의 방출 제한에서부터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종 보호에 이르기까지 환경정책이 더욱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든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불과, 경제적 부담도 심각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환경 정책들이 경제적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불러오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회원국들의 환경정책을 평가한 이 보고서에서 산성비와 납공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가스 방출이 줄어들었으며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됐다고 말했다.

또한 보호구역이 설치돼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농업비료 및 산업폐기물에 의한 오염에 따른 수질악화, 교통증가에 의한 대기오염등이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유럽기업들, 환경 '사전예방' 관심

유럽의 기업들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기술이나 설비

보다는 사전예방 또는 토양 및 지하수 복원 등 환경보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익은 지난 5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최대의 환경기술 박람회인 '엔비텍(ENV ITEC) 2001' 참가 결과를 정리해 6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럽의 기업들은 강력한 환경규제안에서도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설비를 충분히 확충한 상태로 사후처리를 위한 환경시

설투자에는 관심이 적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럽기업들의 환경업무가 그동안 생산과정 이후에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국한됐으나 이제는 생산이전 단계(환경친화적 설비구입)에서부터 생산과정(불량품 및 폐기물 최소화)까지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박람회에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토양 및 지하수 복원 처리기술,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설비와 시스템 등

새롭게 제시된 기술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엔비텍은 3년마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환경기술박람회로 이번 대회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서 47개국 1천900여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방문객은 약 7만명에 달했다.



‘환경기술정보총람 3’ 발간 예정

본연합회에서는 전국의 환경관리인 및 환경인들에게 기술정보 제공을 통해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국내 환경산업 현황을 총망라한 환경관리인의 지침서 ‘환경기술정보총람3’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 ◆ 발간예정일 : 2001년 7월경
- ◆ 거제내용 : 업체별환경기술정보, 환경기술자료, 환경정보자료, 환경관련 업체현황, 환경관리인 주소록 외 회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환경상식
- ◆ 발행예정부수 : 3만부
- ◆ 판매가 : 50,000원
- ◆ 원고마감 : 2001년 6월 10일

구입 문의

전화 (02)852-2291(대) 팩스 (02)852-2294
<http://www.kemf.or.kr> E-mail : kemf@kemf.or.kr

[사]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